

	보 도 자 료 11월 3일(목) 조간 (11.2.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6.11.2. / (총 9매)			
예방접종관리과	과 장	공 인 식	전화	043-719-6810
	담 당 자	신 인 숙		043-719-6823
감염병감시과	과 장	이 동 한	전화	043-719-7160
	담 당 자	조 승 희		043-719-7176

늦가을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 ◇ 영유아 시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사전예방이 최선, 접종기록 확인 당부
- ◇ 집단유행 막으려면 위생수칙 준수 및 감염환자 격리(등교 중지) 필요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가능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의 계절적 유행(가을, 겨울철)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록 확인 및 단체생활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통상 매년 4~6월, 10월말~이듬해 1월 사이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 수두는 전월(9월: 2,304건) 대비 10월 신고건(3,718건)이 61.4% 증가하였고, 유행성이하선염은 전월(9월: 1,286건) 대비 10월(1,630건) 신고건이 26.7% 증가함
- 수두는 3~6세 연령에서 발생률이 높고, 감염되면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가 1주일가량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감염이 20%를 차지하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 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3~7세,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감염병 감시 결과, 10월부터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 발병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 아동 보호자는 생후 12~15개월 사이에 받는 수두 예방접종(1회 완료)과 12~15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접종(총 2회) 받는 MMR*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고, 빠뜨린 접종이 있으면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MMR) 백신

구 분	예방접종 실시기준
수두	총 1회 접종 · 생후 12~15개월 1회
MMR	총 2회 접종 · 생후 12~15개월 1차 · 만 4~6세 2차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에서의 감염병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첫째,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둘째,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교사(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 셋째, 집단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격리치료(증상이 경미한 경우 '가택 격리')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 격리 기간: (수두)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비누를 사용해 **30초 동안** **충분히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 준수**

둘째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교사(담임교사)에게 알리고,** 환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셋째

감염병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에 등교를 하지 않고,** **격리치료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격리기간 | 수도 모든 수도에 막지가 없을 때까지 격리 |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백일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작 후 5일 | 홍역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격리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며,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하며,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 한편,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2016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 | | | |
|------------------------------|----------------------|----------------------|----------------------|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폴리오(IPV) |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 ▲수두 | |
| ▲일본뇌염 사백신 | ▲일본뇌염 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페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 | | ▲인플루엔자 | |

- <붙임> 1.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감시 현황
 2.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개요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 기침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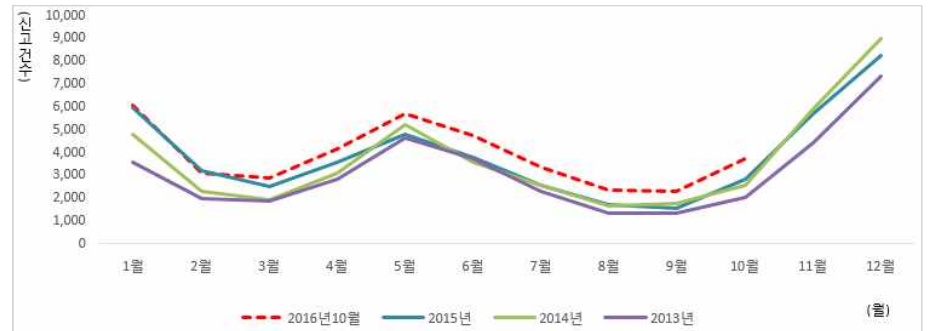
붙임 1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감시 현황

○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신고 현황

<수두 연도별(2013~2016.10월), 월별 신고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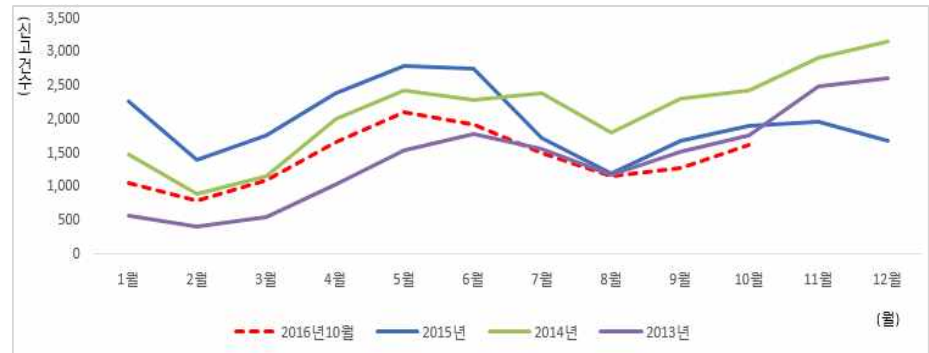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10	6,049	3,110	2,899	4,133	5,693	4,751	3,376	2,365	2,304	3,718		
2015년	5,971	3,176	2,497	3,556	4,784	3,780	2,570	1,693	1,555	2,850	5,723	8,258
2014년	4,801	2,322	1,947	3,113	5,219	3,588	2,560	1,664	1,774	2,549	5,940	8,973
2013년	3,560	2,000	1,868	2,816	4,627	3,712	2,298	1,330	1,315	2,015	4,449	7,371



<유행성 이하선염 연도별(2013~2016.10월), 월별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10	1,063	803	1,100	1,653	2,099	1,927	1,496	1,160	1,286	1,630		
2015년	2,272	1,406	1,774	2,388	2,801	2,746	1,733	1,200	1,678	1,900	1,959	1,678
2014년	1,472	902	1,166	2,003	2,438	2,287	2,395	1,804	2,303	2,439	2,916	3,161
2013년	563	410	543	1,040	1,551	1,788	1,569	1,173	1,514	1,756	2,498	2,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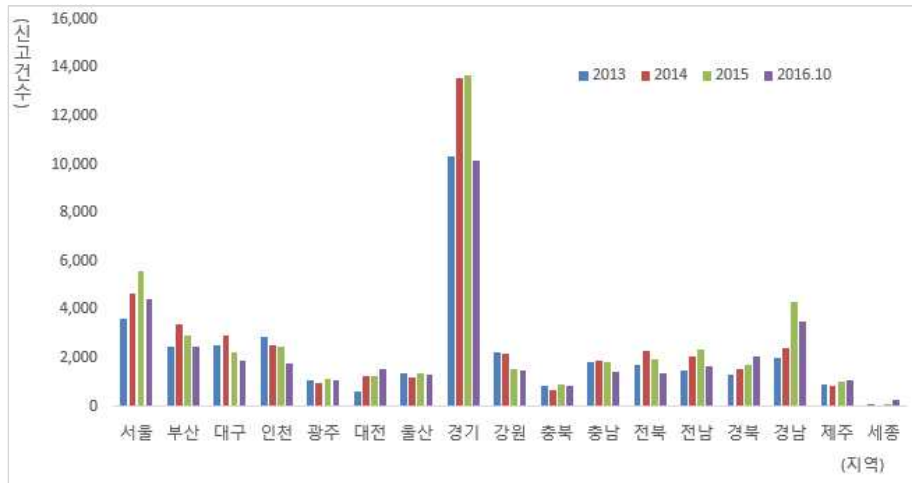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지역별 신고 현황

<지역별 수두 발생 신고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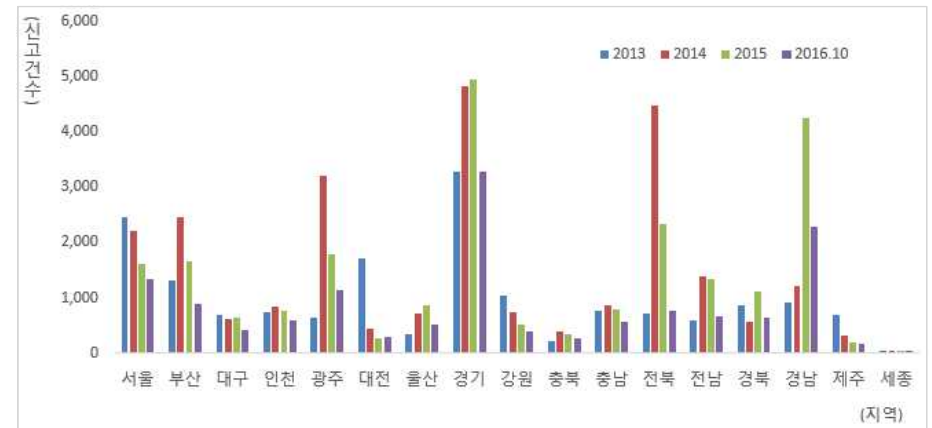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10
계	37,361	44,450	46,330	38,398
서울	3,622	4,641	5,603	4,430
부산	2,472	3,389	2,936	2,457
대구	2,501	2,945	2,238	1,904
인천	2,886	2,525	2,453	1,781
광주	1,109	962	1,128	1,077
대전	629	1,238	1,245	1,572
울산	1,376	1,189	1,349	1,308
경기	10,306	13,584	13,671	10,165
강원	2,257	2,189	1,527	1,483
충북	825	704	933	832
충남	1,842	1,917	1,837	1,412
전북	1,717	2,294	1,921	1,382
전남	1,489	2,041	2,378	1,648
경북	1,314	1,569	1,723	2,075
경남	2,020	2,400	4,297	3,517
제주	918	827	1,008	1,093
세종	78	36	83	261



<지역별 유행성이하선염 발생 신고 현황>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10
계	17,024	25,286	23,448	14,217
서울	2,466	2,212	1,621	1,344
부산	1,300	2,459	1,654	892
대구	684	622	637	412
인천	748	838	753	581
광주	641	3,192	1,794	1,129
대전	1,720	436	274	295
울산	335	709	874	504
경기	3,269	4,813	4,939	3,275
강원	1,041	751	517	400
충북	229	388	334	262
충남	775	852	795	558
전북	726	4,483	2,326	774
전남	588	1,377	1,340	660
경북	853	575	1,121	641
경남	908	1,218	4,237	2,291
제주	687	318	197	168
세종	54	43	35	31




※ 자료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http://is.cdc.go.kr>)의 지역별/연도별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신고 현황으로 2016년도 현황은 추후 신고 취소 및 삭제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 지역별 발생 신고현황 자료는 환자 주소지기준 발생신고 건으로 인구 구성과 규모를 반영한 자료는 아님

붙임 2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개요**

□ 수두

구분	내용
병원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전파경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짐
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미열로 시작되고, 전신적으로 발진성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잠복기 14~16일) 발진은 소양감을 동반하며, 반점에서 구진이나 수포로 급속하게 발전됨. 보통 머리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감 수두는 일반적으로 경증이며 자가 치유되는 질환이나, 소아에서 2차 피부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바이러스성 폐렴 또는 소뇌성 운동마비가 흔하나 대부분 예후는 좋음. 뇌염은 1만명당 1.8명으로 드뭄. 이외 드문 합병증으로 라이증후군, 무균성수막염,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p>[수두 증상]</p>
치료	피부병소의 세균감염을 줄이기 위해 목욕을 자주 시키며, 항히스타민제 투여 등 대증요법 이용
유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수두는 연중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하며, 3~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
환자 관리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가 필요함
예방	<p>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p> <p>*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p>

□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구분	내용
병원체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전파경로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분비물(비말)로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짐
증상 및 임상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행성이하선염에 감염되면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20%정도이며, 40~50% 환자는 비특이적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만 나타 나기도함 일반적으로 30~40%에서 귀밑 이하선을 침범하여 2~3일 내에 종창과 압통이 가장 심해지고, 1주일 정도 지나면 다른 증상과 함께 치유됨 합병증으로 무균성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50~60%는 무증상으로 후유증 없이 3~10일 안에 회복됨. 뇌염은 10만명당 2명 이하로 드뭄, 사춘기 이후 남성환자의 50%에서 고환염이 발생하며, 사춘기이후 여성은 5%에서 난소염이 발생할 수 있음. 체장염 및 난청(2만명당 1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 드문 합병증으로 심근염, 관절염, 신장염 등이 나타날 수 있음  <p>[유행성이하선염 증상]</p>
치 료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며, 대다수의 환자가 자연 치유됨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행성이하선염은 감염환자와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 유행성이하선염은 4~6월, 10~12월에 많이 발생하며, 3~7세와 13~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
환자 관리	전파방지를 위해 환자는 증상발현 후 5일까지 격리가 필요함
예 방	<p>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p> <p>* 접종기준: 생후 12~15개월 1차, 만 4~5세 2차 접종 (총 2회)</p>

붙임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4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 주세요



6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339 보건복지부 콜센터
결핵 ZERO

결핵,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모두를 배려하는 첫 걸음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가리지 않기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